

#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李 性 勳\*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생애 제2기       |
| II. 해녀노래 제보자의 생애 | III. 제보자의 민요 전승 |
| 1. 생애 제1기        | IV. 맺음말         |

## I. 머 리 말

제주도 민요의 연구는 문학적 측면에서 사설을 분석하거나, 사설에 담긴 도민의 의식구조 연구가 주된 관점이었다.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1983)”에 이르러 노동의 현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민요를 분석함으로써 민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 민요의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민요의 사설·율격·유형 및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업적을 이룬 반면에 제보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학들이 민요 사설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던 반면에 제보자의 생애에 대한 조사 연구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왜냐하면 민요의 사설은 모든

\* 국어교육과 4년

구전문학이 그렇듯 서민 공동의 참여로써 이루어지기<sup>1)</sup> 때문에 특정 작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다. 제보자의 생애력과 출가경험사례<sup>2)</sup>가 부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연구의 토대 위에서 민요 사설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연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제보자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제보자 연구는 기록문학의 작가 연구와도 같다. 따라서 제주 민요의 실상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제보자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

이 글은 생활의 담당자요, 구연의 주체인 제보자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869번지 Y노파(81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Y노파라고 해둔다)의 생애력(life history)과 구연한 민요 중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지난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생활이 민요의 사설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피고 그 제보자의 민요의 구연 및 전승 실태를 살피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 활용된 구연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 (2)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3: 濟州道 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3)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研究會; 「白鹿語文」 創刊號, 1986.
- (4) 필자가 1986년 7월 28일부터 1986년 7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성산읍 온평리 학술조사에 참여하여 채록한 민요와 1986년 8월 8일과 8월 10일 성산읍 온평리, 1986년 8월 14일 성산읍 성산리에서 채록한 민요와 생애력.

## II. 해녀노래 제보자의 생애

Y노파(여·81)는 1905년 牛島에서 출생하여 1965년까지 60년간 이 섬에서 살다가 현재는 城山邑 溫平里에서,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1922년부터 1935년까지 巨濟島·九龍浦·釜山·豆滿江·馬養島·新浦

- 
- 1)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p. 115.
  - 2) 金榮敦外 2人;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第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pp. 108~118.

등지에 나가 물질을 했고, 1936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日本의 下關·四國 등지에 두어 차례 물질을 나갔었다. 따라서 Y노파의 本土 出稼는 1935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삶은 편의상 크게 2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1. 생애 제1기

제1기는 1905년부터 1922년까지 18년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제1기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제보자가 1905년 北濟州郡 牛島面(당시 北濟州郡 舊左面 濱坪里)에서 태어나 자라나면서 물질을 배웠으며 처음으로 육지로 출가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 Y노파의 생애력을 살피기 위해 제보자가 구연한 제1기에 해당되는 삶을 기술하면,

친정도 시가도 소섬[牛島]인디 우리 클 맨 흑교가 웃어져. 뵈을 배와 신고 흑은 그뵈 아무 공부도 안호고 밧디 지신 매멍 놀레(노래) 불르는 거, 물에 들레 개젓이<sup>3)</sup> 강 물질호는 거, 등복<sup>4)</sup> 주서오기, 우피(우무) 강 뜬어오기, 개젓이 강 물질 안호은 무시거 해볼 것이 이시냐게. 먹어볼 것이 이시냐게. 열 술 뒤난 물질을 배완 벌어 먹영 살젠 배와시네. 물바우에 강 우리 언닌 호짬<sup>5)</sup> 크난에 오물락오물락 숨비곡<sup>6)</sup> 난 못호은 우리 언닌 열다솨 때난 물질하라게. 므스왕<sup>7)</sup> 아이고 어뎡 들어가코 시퍼렁흔디 눈도 안 씨곡 호영 영 사민 물데레 자락자락 들이밀멍 물질 안호민 어뎡호영 살티, 굶영 죽을티 호은 살기 위헨 물질 배와시네. 열오뽇술 나난 육질 가지 안해시나. 어뎡호연 가계 뒤신고 호은 우리 아바지가 뵈을 난 죽게 뒤고 돈이 서사[있어야] 약을 상 먹을 거난 놈신디 돈을 쥌 거 아니. 밧문세나 집문셀 취사 돈을 쥌 쟁. 돈은 누계 벌 사름 웃이난 웃고 쟈

3) 개젓이 간다. 해너가 바다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간다.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牛島學術調查”, 「國文學報」 제5집, 1973. p. 75.)

4) 노랑쟁이·몸·등복·고지기 등을 일팔 등복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揭書, p. 75.)

5) 아주 자그만큼. 호짬.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資料篇, 太學社, 1985. p. 594.)

6)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잠기곡. (玄平孝: 前揭書, p. 492.)

7) 마음에 두려운 느낌이 있어서는(玄平孝: 前揭書, p. 444)

나가 열오희술에 육지간 벌언 오란 집이영 밧이영 문세 다 훗안 안네영<sup>8)</sup> 시  
집을 가서.<sup>9)</sup>

Y노파가 태어난 牛島는 濟州本島의 동단 城山浦에서 3.8km 떨어진 바다에  
놓인 면적 6,646km<sup>2</sup>의 부속도서이다. 50개에 이르는 제주도의 부속도서(有人島  
9, 無人島 41) 가운데 가장 큰 이 牛島는 흔히 ‘소섬’이라 하는데 행정상으로는  
은 섬이 北濟州郡 牛島面(당시는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으로 되어 있다. 북위  
33°29′6″ 동경 126°58′3″에 위치한 이 섬은 남북의 길이 약 4km, 동서약 3km로  
하천은 없다. 주된 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해녀들의 裸潛漁業을 중심한 수산업  
이다.<sup>10)</sup> 농사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력은 다른 원시 경작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sup>11)</sup>

Y노파의 어린 시절 牛島에는 현대식 교육기관이 없었고 단지 演明義塾이라  
는 書堂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일, 특히 여성이 교  
육을 받는 일은 드물었기에 Y노파는 학업 대신에 밭일이나 해녀로서의 기량을  
닦으면서 김 매는 노래나 해녀노래 등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현재 牛島面에는 1929년 演明書堂으로 출발한 연평국민학교와 1954년 개교  
한 연평중학교가 있다. 演明書堂 이전에 演明義塾이 1918년부터 있었으므로<sup>12)</sup>  
牛島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보겠는데 토착화된 유교의 영향은  
노동천시와 학문 숭상이 강조되어 남성을 여성보다 優位視하는 경향을 굳혀 갔  
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악덕이지만 남자에게는 덕이다. 일  
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남자가 더 대우를 받는다.<sup>13)</sup>

결국 1929년 연명서당으로 출발한 연평국민학교가 있었지만 여자란 신분 배  
문에, 또한 자신(남자)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선비의 자손이고, 일하고 벌어  
오는 사람(여자)은 따로 있다는 식의 사고<sup>14)</sup>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8) 옷어른에게 물건을 드리어서. (玄平孝: 前揭書, p.502.)

9)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1986. 8. 8. Y노파, 여·81.

10)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牛島學術調查”, 「國文學報」 第5輯, 1973. pp. 56~  
67.

11) 趙憲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 분업에 근거한 남녀 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p. 149.

12)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揭書, p. 63.

13) 趙憲貞: 前揭論文, pp. 160~163.

14) \_\_\_\_\_: 前揭論文, p. 161.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언니의 강요로, 생계 유지의 한 방편으로 현실에 순응하며 밭일과 물질을 배웠다고 보겠다. 제보자가 말한 대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클 뻔 흑교가 웃었저, 뵈을 배와신고 향은 그뻐 아무 공부도 안향고 밧디 지신 매명 놀레(노래) 불르는 거, 물에 들레 개겻이 강 물질향는 거, 듬복 주서오기, 우미(우무) 강 뜯어오기, 개겻이 강 물질 안향은 무시거 해볼 것이 이시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교육 환경 뿐만 아니라 김 매는 노래나 해너노래 등 민요를 배우게 되는 기연을 말해 준다. 이것은 제보자가 구연한 김 매는 노래에서도 입증된다.

[1] 어서매라	어서나매라
일락서산에	해떨어진다
흔저매라	즈녁이나
붉은매 향게	흔저나매라
우리어머니	날날적엔
공부도	안시켜주꼭
요런검질만	매랜해시냐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7.29. Y노파, 여·81)

[1]은 김 매는 실태를 노래하고 있다. 제주는 monsoon형, 아시아의 高溫, 多雨, 多濕—灌溉農業(bewassnungs kultur)—耨耕下에서 지질의 절리구조와 화산회토의 보수성 결여는 澁水機能 즉 容器的 機能의 결여로 전작농업(field kultur)을, 또한 耨耕(手鐵耕—中耕, 除草 과정을 필수로 하여 많은 노력이 요함)이라는 농경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주의 농경은 和辻이 표현했듯이 「잡초와의 싸움」으로 시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農作業中 가장 고된 작업이다.<sup>15)</sup> 따라서 김 매러 아침에 밭에 나가면 해가 떨어져야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제보자가 구연한 김 매는 노래 [1]에서 힘든 농사일 대신에 공부나 했으면 하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여자로서 저녁을 짓는 일은 김을 매는 일과 함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김을 매고나서 저녁을 지어야 하는 조바쁜 실정을 노래하고 있다. 어두워지면 저녁을 짓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15) 姜景燾: “濟州道の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p.91.

여자로서는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후반부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김을 매야 하는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이는 Y노파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녀의 생애와 그녀가 노래하는 사실이 일치된다.

牛島의 들레는 황금어장을 이루었으며 넓미역·우뭇가사리·미역·소라·전복 등 해조류·패류가 많다. 이처럼 해산물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지만 Y노파는 언니로부터 물질을 배우는 과정이므로 기량이 모자라 뜻대로 채취하질 못한다.

[2] 어느제민            열다초나경  
       비양도섬의        짓넙은매역  
       가시테로나        웬기레가코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847)

[2]에서의 구연자는 하루 빨리 열다섯 살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해녀로서의 기량도 그만큼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Y노파의 경우도 그녀의 언니는 열다섯 살이 되니 물질을 했지만 아직 그녀는 어려서 바다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는 등을 떠밀면서 억지로 잠수질을 가르친다. 잠수질은 “물질 안훔은 어떻훔영 살티, 굶영 죽을티”에서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더우기 그녀의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섬 밖으로 海女出稼하는 일은 필연적이었다. 그리하여 열여덟 살이 되면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물질을 간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의 여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환경이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馬羅島의 경우도 海女들의 연령은 16세부터 76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연령층이 보여주고 있듯이 노소에 구분이 없이 도서내에 거주하는 모든 여자들은 잠수능력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한다.<sup>16)</sup>

海女노래는 물질을 배우면서 부르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의 내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따라 부르다가 중군·상군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사실 속에 투영시킨다. 따라서 제주 해녀들은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이 없더니 성장하면서부터 [2]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된 성회를 비로소 자각한다.

16) 李起旭: “島嶼와 島嶼民: 馬羅島”, 「濟州島研究」 第一輯, 濟州島研究會, 1984. p.170.

특히 민요와 같은 구비문학에 있어서는 삶이 정제되어서 표현되기 보다는 삶 그 자체가 진하게 직접적으로 사실 속에 드러난다. 왜냐하면 민요는 양반들과 같은 상류계층에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감정·사상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노래이며 생활상의 필요에서 부르는 노래<sup>17)</sup>이기 때문이다.

중년이 된 Y노파는 巨濟島로 出稼를 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 아버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어찌하여 제주 해녀들은 정든 산천을 버리고, 오랜 세월 천리타향으로 물질나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제주도 연안에는 수산자원이 한정되었는데다가 出稼對象地에는 가멸진 자원이 바닷속에 깔렸는데도 이를 켈 만한 해녀가 별로 없기 까닭이다.<sup>18)</sup> 출가 대상지까지 가는 과정을 구연하는 대로 기술하면,

육지레 갈 때민 좁쌀, 보리쌀을 혼 두어 말씩 쌀 가질 안호느냐, 그뉘 강 쌀을 못 사난. 처음으로 저제도(巨濟島) 미날구미엔 혼디 가신디 남즈가 셋몸 올르곡 혼 열다호 명이 풍선으로 브름 술술 불민 듯 돌곡 브름 웃인 때민 벨(노를) 다호 채 놓앙 네 짓엉 가곡 쉰 무루 넘어갈 뻔 베 안 올라가가민 기신 내영 짓젠 호은 발판지멍 어기야차 디야 해가민 막 올라가느네. 밤이도 짓곡 낮이도 짓이멍 일뵤나 걸려시네.<sup>19)</sup>

제주도는 화산암지대이므로 乏水地域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자연적으로 농경지역이 湛水狀態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화산회토의 保水性 결여로 畚作이 아니라 田作의 풍토가 형성되어<sup>20)</sup> 조와 보리가 주곡이었다. 牛島의 경우도 주된 농산물은 보리·유채·고구마 등 밭작물이다. 따라서 육지로 출가를 하는 해녀들은 좁쌀과 보리쌀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는 현지에서 쌀을 구입해서 이용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출가를 하는 해녀들은 출발시 강한 의지를 품고 떠나는데 해녀들이 뚝배를 타고 本土 각 연안으로 나가는 일은 며칠씩 海原에서 지새어야 하는 목숨 건 투쟁이었다.

17) 張德順外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p. 76.

18) 金榮敦外2人: 前掲論文, p. 107.

19)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8.8. Y노파, 여·81.

20) 姜景燾: 前掲論文, p. 90.

- |          |       |
|----------|-------|
| [3] 성산포야 | 잘이시라  |
| 맹년이철     | 춘삼월나민 |
| 살아시민     | 상봉이여  |
| 죽어지민     | 영이벨이여 |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871)

해녀 出稼出發時의 의지를 노래한 [3]은 城山浦港을 떠나 本土로 물질 나가는 해녀들이 생활을 위해 목숨을 건 悲壯을 역연히 노래하고 있다.<sup>21)</sup> 내년 이맘때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출가기간이 일년여에 이르며,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경우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목숨을 건 해녀들의 생존의식이 나타나 있다. 잠수질을 하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 때, 돛배를 타고 항해 중에 풍파를 만났을 때는 그것은 곧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고향을 떠나 타지로의 출가는 [3]과 같은 사실의 해녀노래를 구연하게 했다.

이와 같이 강한 의지를 품고 출가를 하는 해녀들은 밤낮 없이 노를 젓게 되는데 본토 출가 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노를 저어 본 경험이 없는 해녀들은 노손에 손이 터지기까지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해녀들의 출가 그 자체가 고생스런 삶의 시작이며, 그것은 더욱 그들의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 |          |      |
|----------|------|
| [4] 우리부모 | 날날적의 |
| 가시나무     | 몽그지에 |
| 손의꿩이     | 지우라고 |
| 날낳던가     | 날낳던가 |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8.10. 송연철, 여·71)

원시인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육체를 움직일 때, 그들의 육체의 운동은 그들의 호흡과 맥박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자연적으로 순응하여 육체의 운동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리드미컬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몸을 울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력을 절감하는 방법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

21)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 93.



이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 노동에 있어서 그들의 힘을 동시에 완전히 한 동작에 집중하는 경우에 특히 현저한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sup>22)</sup> 海女노래를 힘차게 부를 때에도 일제히 규칙적인 동작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힘을 한 동작 한 동작에 모았다. 이렇게 될 때 노를 젓기가 한결 편해지고 사실 내용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고무하며 격려한다.<sup>23)</sup> 따라서 海女노래도 다른 노동요와 마찬가지로 노를 젓는다는 노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바다와의 일체감에서 흥겹게 부른 인간의 삶의 소리인 동시에 바다의 소리며 노동의 소리인 것이다.<sup>24)</sup>

바람이 불 때는 돛을 달고 항해를 했으나, 바람이 멎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경우 파도가 높아 센 마루를 넘어갈 때는 힘껏 노를 저었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센 마루를 넘어갈 때는 해녀노래를 노 젓는 동작에 맞추어 정관<sup>25)</sup>을 짚으며 구연한다고 한다. 즉 노를 밀 때와 당길 때 정관을 발로 짚는데, 이는 행동 통일을 하고 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호흡에 맞춰 반복 제창하는 '어여차 어야'나, 또한 노를 저을 때 '어기여차 어야디야' 등과 같은 단순한 감탄사적 소리의 첩어적 반복에서<sup>26)</sup> 더 나아가 다양한 사설로 발전하며 그 가락은 力動的이다.

- |          |        |
|----------|--------|
| [5] 정관지른 | 발바닥아픈다 |
| 요네젓엉     | 어덜가리   |
| 한강바당     | 골로간다   |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919)

- |          |        |
|----------|--------|
| [6] 지붕에도 | 므름이식나  |
| 이팔칭춘     | 므름웃일말가 |
| 젓고나가게    | 베겨나가게  |
| 요므름을     | 젓고나가게  |

22)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19.

23) 金榮教: 前掲論文, p.86.

24) 김무현: 「한국 노동 민요론」, 집문당, 1986. p.59.

25) 남시거루의 이물간 다음간의 밑널땀지, 여닫게 되어 있으며 노 저을 때 디디어 서는데, 그 밑에는 漁具나 採取한 海産物을 넣어 둠.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p.241.)

26)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pp.148~149.

아니나졌영      몬가더라  
 첫일데로      첫어나가게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890)

[5], [6]은 물결이 썰 때 노를 짓는 노동실태를 노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해녀노래를 구연하다가 가락에 도취되어 흥이 나면 한결같이 노 짓는 흥내를 내며 발로는 마루바닥을 쿵쿵 짚는다. [5]는 물결이 세기 때문에 발이 아플 정도로 정판을 짚으며 힘차게 노를 저어 가지 않는다면 한강바다 끌로 갈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6]은 큰 파도인 마루를 잘 저어 가자고 노래하고 있는데 인생에도 마루가 있다고 하면서 구연자의 서정적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물질을 배우게 된 동기와 출가 이유, 노를 짓는 노동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제보자의 제1기의 삶은 한 마디로 가난한 가정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간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Y노파는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가난의 원인은 사회적 구조의 모순이나 환경에 의한다고보다는 개인의 나태로 보고 있다. 즉 가난한 삶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갖은 어려움을忍苦하며 勤勉·自尊하며 自彊하는 의지와 守分, 知足하면서 實質에 터전하여 力行함으로써 생활을 이겨나가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이 때의 생활 경험이 민요의 사실, 특히 해녀노래의 사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 2. 생애 제2기

제2기는 1922년부터 1935년까지 14년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제2기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제보자가 1922년 고용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물질을 하면서 남편을 공부시켰으며 1929년 남편이 첩을 데리고 淸津으로 나가 제2의 살림을 하였지만 개가를 하지 않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간다. 1933년 남편이 淸津에서 돌아와 첩과 헤어졌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요구하자 Y

27)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p.131~132.

노파는 네 살된 아들만 데리고 淸津으로 남편을 따라나선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졌다는 첩은 淸津에 그대로 있었고 남편에게 속은 것을 안 제보자는 아들을 데리고 豆滿江·馬養島·新浦 등지에서 물질을 하다가 제주도도 귀향하게 된다.

우선 1929년 남편이 첩과 함께 淸津으로 가는 과정까지 제2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피기 위해 제보자가 구연한 생애력을 기술하면,

경혼난 이제 난 열오름술에 씨집을 가랭혼난 이거 뭐 바로 검질[김] 매레 가는 놈이주머. 남즈가 어떤 사름산디 모르거든. 새시방(새서방)을 절대로 날 안 배와, 또 분시(분수)도 모르고 난 열오름술이난 뭐 각신이 서방인가 그것도 공부허레 서울 간 상업학교 뎀 오고 영혼젠 혼난 그찌 하루토 못 살아 봤거든. 우리 친구덜은 남즈가 경 어린디 가른 우리가 혼 의상 살당 죽을 건디 우리는 다른 남즈 택행 간면혼 친구가 멧 사름 잇저. 경혼디 난 그리 못허더라. 부모가 그만 혼 맹령혼연 보낸디 우리 아까운 아기덜 두 개 모른첸 나가불민 아방 오랑 놈의 어멍 손에 밥을 주쟁 혼고 고생 안혼덴 말은 못홀꺼 아니가. 아기덜 두 개 고생시키지 말겐 앓영 사는게 옳든 혼나 나도록 이집을 지키지 안해시나.<sup>28)</sup>

Y노파는 巨濟島로 물질을 갔다가 돌아와 아버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빌어 쓴 돈을 모두 갚고 그해 12월에 6년 연하의 고용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당사자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가부모의 합의에 의한 仲媒婚을 하였다.

朝鮮王朝時代의 혼인이란 어디까지나 家를 위한 것이요, 부부가 되는 일남과 일녀의 개인적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sup>29)</sup> 따라서 중매를 통하여 成婚이 되기 마련이었는데, 牛島는 40년 전까지 서당이 있었으므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매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육지 양반 동네와는 달리, 마을 내에서 타성과의 혼인은 금기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취택(preferred)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경제적 주생산자인 여성들의 협동관계가 어머니와 시집 간 딸이 가까이 사는 것에 의해 강화되는 점이 이들 모녀 간의 감정적 유대감에 덧붙여 마을 內婚(village endogamy)을 장려하게 되었다고 보여

28)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8.8. Y노파, 여·81.

29) 丁堯燮: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位置", 「亞細亞女性研究」 12집,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3. p.108.

진다.<sup>30)</sup>

시집을 가는 것을 어찌하여 “씨집을 가랭환난 이거 뭐 바로 점질[김] 매레 가는 놈이주머”로 인식하였을까.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댁에 경제적으로 공헌하려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의 합의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방적인 성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식 속에는 당시 현실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순종하며 인내해야 하는 갈등적 요소를 내재하게 하였다. 이것이 김 매는 놈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7] 시집매레            날가랭훤은  
물도낭도웃인        가다귀섬의  
귀양정배            마련이라라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443)

[7]은 시집으로 가는 길을 귀양·정배 가는 것으로 여겨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주된 노동력인 전통사회에서 흔히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령이 많았던 것은 며느리가 가족 노동자로 생각되었고 며느리의 경제적 공헌이 가족에 필요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sup>31)</sup> 그러면 훌륭한 신부로서의 조건은 무엇이였을까. 일 잘하고 인물 좋고, 가문에 흠이 없으면 좋은 신부감이라 하겠는데<sup>32)</sup> 성산읍 성산리 정옥단(여·85)의 제보에 의하면 가문과 얼굴은 보지 않고 착하고, 물질 잘하고, 바느질 잘하는 것이 첫째의 조건이었다고 한다.<sup>33)</sup> 즉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은 일 잘하는 것으로 인물이나 가문보다도 더 중시했던 듯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부녀자들이 근면해야만 가정이 유지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데서 단지 현숙하고 온순하기만 한 규수를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철두철미 생활력이 강하고 어떤 難境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야무진 성격의 규수를 택하려는 경향이 짙다<sup>34)</sup>고 하겠다.

30) 趙惠貞: 前掲論文, p.155.

31) 李光奎: 「韓國家族의 心理問題」, 一志社, 1981. p.12.

32)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84, p.110.

33) 필자조사, 성산읍 성산리, 1986. 8. 14. 정옥단, 여·85.

34) 金榮敦: 「濟州島民의 通過儀禮」, 「제주도」 33호, 1968. p.157.

중매로 시집을 간 Y노파는 물질을 하면서 6년 연하의 남편을 공부시켰는데, 당시에는 유학하는 일이 드물었으므로 물질나가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남편의 학비로 쓰인 사례는 드물다.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1313의 이도화(여·80)의 경우도 15살에 해녀질을 시작해서 60세까지 물질을 했는데 20세에서 몇년 동안 釜山·蔚山 및 多島海 등지에 물질을 나갔었는데 고생스리 번 돈은 서울에서 고학했던 5살 밑의 남편의 학비로 충당했었다.<sup>35)</sup>

남편이 서울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 Y노파는 巨濟島·九龍浦·釜山 등지에서 물질을 하며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의 고생스런 삶을 참고 이겨나간다. 巨濟島 등지에서 물질을 할 때 젓먹이 딸자식을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이 경우 가장 어려울 때는 우는 아기를 떼어두고 물질을 나갈 때였다고 한다.

- |          |      |
|----------|------|
| [8] 어서가자 | 어서가자 |
| 어서가서     | 우는애기 |
| 젓을주영     | 즈녁밥은 |
| 붉은때지영    | 먹자구  |
| 흔저어서     | 재기지라 |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

(필자기록, 성산읍 온평리, 86.7.29. Y노파, 여·81)

[8]은 젓먹이 애를 두고 물질을 간 부모의 심정을 어렵히 노래하고 있는데 남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어둡는 출도 모르고 물질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딸자식을 돌보고 싶은 부모의 모성애가 잘 드러나고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기에게 젓을 주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며 자식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노래한다.

- |          |      |
|----------|------|
| [9] 은자동아 | 금자동아 |
| 세상천지     | 웃듬동아 |
| 부모에게     | 효자동아 |

35) 金榮敎外2人: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第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p.258.

나라에는	충신동아
어름궁계	수달피나
사낫밋혜	미나리나
무주공산	жат송이나
청산봉안	대초씨나
날어가는	학선인가
웃고름밋혜	옥동자요
수팔년에	밀동자라
선수불공	내아들아
녹음에진	정내딸아
은을주면	너를사랴
금을주면	너를사랴
남전북답	장만한들
이에서	더조흐며
산호진주	어덧슨들
인에서	더조호라
대장되건	을지문덕
충신되면	백이숙제
둥둥둥둥	둥둥둥둥
둥계 둥계	둥계야

(金素囊, 「朝鮮口傳民謠集」, 13)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인 [9]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는 지역적 자장가보다 그 내용에 있어 노래하는 주체의 애정과 기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세상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기이며, 은을 주어도 사지 못하고 금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貴童이다. 대장이 되려면 을지문덕이 되고 충신이 되려면 백이숙제가 되라는 것이다. 곧 을지문덕과 백이숙제는 부귀영화의 표상인 것이다. 남전북답을 장만하는 일은 재산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귀동인지라 재우면서도 자장가를 불러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바랐다.<sup>36)</sup> 이렇게 巨濟島·九龍浦 등지에서 물질을 하면서도 남편을 유학시키고 자식이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고대하면서 생활고를 이

36) 尹致富: “韓國자장가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p. 17-19.

겨나갔다.

그런데 유학을 갔었던 남편은 첩을 데리고 돌아온다. 남편은 본부인인 Y노파를 데리고 淸津으로 함께 가려고 하지만, 한 남자를 두고 첩과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가 어색하므로 같이 가기를 거부한다. 그 후 남편이 淸津으로 갔다가 4년 후에 다시 돌아와 첩을 보내버렸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Y노파는 지난날의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잊고서 4살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동행한다. 그러나 淸津에는 첩이 있었으며, Y노파는 다시 귀향하게 되는데 淸津에 있는 남편 집을 나와서 豆滿江·馬養島·新浦 등지에서 물질을 하다가 돌아온다. 그간의 과정을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기술하면,

우리집 주인이 뒷물 호레 청진을 가시고 호른 저 양복하는 걸 배웠거든 각시도 그런 거 호는 각실 얻었거든나 말앙. 우리 부랑(富寧)·청진 종편호매 그디 강 살겐. 난 죽어도 안 가켄 했거든. 안 가켄 호난 그 여자 돌아 앓안 청진 돌아나 부러어. 그루젠 나가 얼굴을 못 봐서 청진이 어딘 줄 알앙 좇아갈 지느냐. 아이들 두 개가 움질움질 커 가난 다 호교 부쳐거든. 딸 호나 호교 부친 이시난 아방열 8돐에 난 아덜 네 술 나는 해에 왔더라. 우리집 영감이 와네 나그라, 청진 가난 그리 좋더라. 살기가 좋고 양복점 출려네 직공 멧 개 들고 양복하다네 그 여즌 보내비엿다고. 무사 보내비연디 호난, 막음에 맞지 안호연 보내비엿겐. 나 호고 가자 호는 저라. …(중략)… 아홉 술 난 지집아이 호교 부치곡, 네 술난 아덜 만 드리곡 갖거든. 안 뒤편더라. 메뉴리나 동성 그트른 혼집의 살주마는 각시 돌아당 사는데 호디 살아지느냐 아니꼬완 못 살깃더라. 씨앗이엔 호른 안 뒤편거든. 그디 강 영 앓임도 나 직업광 그 사름 직업이 트나(달라) 부난 호를, 이틀 양복하는 것도 베레곡 놀주(보면서 놀지) 베리기도 싫더라. 막 남즈광 싸움을 했거든 고향 간다고. 가지 말앙 상점 호나 출려 놓건 양복 갖다 풀곡 아덜 잘 키움곡 호영 살민 좋게 해주마 남즈 호더라. 나가 해너칠 호영 혼 데에 멧 천원씩 버는데 안 호켄 호난. 이젠 아덜은 도랜 호더라. 나가 남즈도 놀안티 잃어부령 부애가(화가) 나는데 아덜 2정 출려 뉘꼬. 못 주깃다고. 안 주어그네 부산데레 오젠 멧기노랜 호난, 우리 동네 소섬 사름이 서수라(西水羅)서 줌주 해오랜 나은 사름이 있어. 아지망 읍서 우리 저 서수라 가게, 물건이 핫수면. 경 호난 가는 해너들 멧 호곡 그딜 가질 안해시냐.<sup>37)</sup>

豆滿江 出稼의 원인은 남편과의 사랑 때문이었다. 1929년에 시את을 데리고

37)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8.8. Y노파, 여·81.

청진으로 가버렸지만 남편이 돌아와 시앗을 보내버렸다고 하자 그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시앗에 대한 증오감도 사라지고 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恨이 사라져 버린다.

- [10]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수야경첩에      대동강풀리곡  
 정든임의말씀에      요내속풀리는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8.10. 중연월, 여·71)

이처럼 제주 해녀들은 시앗을 얻고 가는 남편에게 원망과 한을 품고 있다가도 남편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해녀작업을 하러 오가면서 [10]과 같은 해녀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받기 위해 청진으로 갔지만 시앗과 헤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살고 있는 것을 보자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알고 나오게 된다. 제보자가 말한 대목에서도 “메누리나 동성 ㅁ트는 혼집의 살주마는 각시 돌아당 사는데 혼디 살아지느냐 아니꼬완 못 살겠더라. 씨앗이엔 혼은 안 뉘거든. 그디 강 영 앓임도 나 직업광 그 사름들 직업이 트나 부난 혼를, 이틀 양 복혼는 것도 베레곡 놀주 베리기도 싫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妻妾관계와 海女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말해준다.

- [11] 질이웃영      혼질을걸곡  
 물이웃영      혼물을먹곡  
 살쌔보릴      거죽차먹은덜  
 씨앗이사      혼집의살라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573)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남자를 두고 妻와 妾은 서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대체로 첩은 용모가 곱고 젊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 正妻의 첩에 대한 감정은 좋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감정은 시앗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호갈등을 야기시키게 되므로<sup>38)</sup> 집을 나와서

38) 吳益三: “濟州島 옛돌·방아노래에 드러난 妻妾關係”, 「學術調查報告書」, 第6輯, 濟州大學 國語教育科, 1978. p.118.



홀로 살아간다. 역으로 말해서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럿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인들이 해녀이므로 남편의 부양이 없어도 부인이 海女收入으로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는 데 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sup>39)</sup>

이처럼 시앗에 대한 미움과 해녀 직업에 대한 自矜意識으로 Y노파는 淸津에서 남편과 첩과 함께 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제주 해녀들은 투철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 나름의 自矜과 自慰를 느낀다.

[12] 기차마차	중동차야
날실렁	가저라
어디라도	나몸홀로
정처엇이	떡라가마
술장실	ㅎ라마는
젊은년질	몬ㅎ는걸
쌀잘실	ㅎ라마는
꽤악질을	몬ㅎ는걸
포목장실	ㅎ라마는
자꺄층을	모르는걸
청춘이	아까와도
흔질두질	지픈물에
메역떡고	생부떡고
숙펜토록	질종구나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855)

술 장사, 쌀 장사, 포목 장사는 해녀 작업에 비하면 특수한 기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록 목숨을 걸고 전복·소라·미역을 채취하지만 해녀 작업에 대한 그들 나름의 自矜과 自慰意識은 여타의 다른 직업에 비길 바가 못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自矜과 自慰意識은 세월과 함께 점차 사그라져 가는데, 그것은 해녀수의 감소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주도 인구 추세에서 보면 해녀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의 해녀수는 23,930명으로 제주도 여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로서 해녀가 8명 중 1명꼴이 되는 셈이었으나 1983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7,885명으로 3.2%에 불과하다.<sup>40)</sup> 이러한 해녀수의 급격한 감

39)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掲書, p. 105.

40) 濟州道: 「濟州道 統計年報」, 1984. p. 62.

소현상은 제주도의 높은 진학률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이 그 주된 원인<sup>41)</sup>으로 지적될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또한 수익면에 있어서도 해녀 직업만큼 나은 것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지냈던 해녀 직업에 대한 自矜·自慰意識은 변하여 자녀들을 공부시켜 해녀 직업을 택하지 않게 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Y노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에 따른 자신의 해녀 수입으로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으므로 고향 사람인 선주를 따라 두만강으로 물질을 가게 된다. 두만강 물질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기술하면,

어디 강 물질을 훔쳐고 **훔**난 두만강서 **훔**랜 **훔**는거라. 물에 들엉보내 강 **훔**나만 넘 으민 로서아(러시아)이 **경**훔난 눈물이 나더라. 아이고 우리가 해녀질 배왕 돈을 딸랑 오는다 이거 어디엔 우리가 오라 저신고. 이제랑 부모덜안티 췌지나 **훔**젠. 또시 우린 글이나 아느냐. 소섬에도 글 배운 사람 **훔**나도 웃엇져. **경**해도 난 우리 아덜, 손지도 이제 **꺾**정 공부시켰져. 우리 강 물질을 **훔**는 포구엔 그딤 사람덜이 낫인 제뻬 우리광 벗을 **훔**더라. 밤은 **뒤**은 돌머드름[돌팔매질]이 다 나오꼭 아주 박헛 못 살것더라. **훔** 스무날 물질해보단 안 **뒤**저든. 나오질 안 해시나. 다시 청진을 나오라네 돌아상 오는다, 어디 오랑 물질을 해신고 **훔**은 마령도(馬嶺島)·신포(新浦) 오라네 물질을 시작해신디 유월 초나홀부터 팔월 열나홀까지 물질을 헛어 그딤 **경** 먹음이 좋더라. 막 음식도 **꺾**찌 노방 벉꼭 우리가 살아가듯 살아가지더라. 물건을 얼마나 잡아신고 **훔**은 **훔** 돌 동안 물질**훔** 거 **앗**앙오랑 **밧**을 샷저든. **경** **훔**젠 **훔**난 팔도강산 구경 안 **훔**더가 **웃**다.<sup>42)</sup>

淸津에서 西水羅로 가서 豆滿江에서 물질을 하게 된 Y노파는 자신이 청진에서 이국 땅 가까이까지 오게 된 것은 시앗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겠다.

- [13] 대동강이            벼홀으로  
우리님은            아니벼홀줄  
알았는데            그릴수가없구나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7.29. Y노파, 여·81)

41) 金榮敦外2人: 前掲論文, p.150.

42)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8.8. Y노파, 여·81.

남편이 첩을 얻게 되자 자신에 대한 배반을 애달파 한 [13]은 그 배신을 절규하듯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배신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꾀꾀하게 일어서서 남편과의 애정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로 轉移시킨다. 자신은 비록 가난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학업 대신 물질을 배웠지만,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며 고생스런 삶을 이겨나간다.

- |           |        |
|-----------|--------|
| [14] 열다섯에 | 물질배왕   |
| 스물다섯나난    | 상군향여   |
| 웬착뚝지예     | 태확메곡   |
| 느단손에      | 서수나빛창  |
| 들러심영      | 물아래강   |
| 전북메영      | 올름볼름   |
| 버슨금전      | 얼마나메와근 |
| 우리아덜      | 대학공부   |
| 시켜나볼까     |        |

(「口碑文學大系 9-3」, 서귀포시 민요3)

두만강 물질을 하면서 주로 채취한 것은 성계였다. 그러나 入漁慣行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박해로 물질을 며칠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入漁慣行을 둘러싼 소요로 경상북도의 九龍浦·甘浦·良浦 지방과 제주도와의 사이에 入漁慣行權消滅確認訴訟을 내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sup>43)</sup> 현지 주민들이 돌팔매질 등을 하며 박해를 하지만 본토로 출가를 하게 된 것은 돈벌이 때문이었다. 이것은 제보자가 들려준 대목에서도 “우리가 해너질 배왕 돈을 똥랑 오는디”라고 말하고 있다.

- |           |          |
|-----------|----------|
| [15] 돈아돈아 | 말모른돈아    |
| 돈의전체굿     | 아니민      |
| 노꼭두만강     | 어디라니     |
| 부량청진      | 어디라니     |
| 부량청진      | 오란보난     |
| 「이나그네     | 놀래들어옴지기  |
| 제주안간      | 놀래들어옴지기」 |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939)

43)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pp. 132~140.

[15]는 出嫁生活을 노래했는데, 먼 곳 富寧·淸津까지 물질 나간 제주 해녀들은 이런 고생이 돈벌이 때문임을 새삼 확인한다.<sup>44)</sup> 결국 두만강에서 물질을 못하고 마양도·신포에서 두 달 정도 물질을 하는데 이곳의 주민들은 박해를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 주민의 박해 못지 않게 해녀 작업이 고되다는 것을 느낄 때는 하루 종일 물질을 해도 번 것이 없을 경우라고 한다.

[16] 줌수나전생      가련하다  
 아척일찍          집을나강  
 하루종일          번것은  
 기가맥히고        몬살것네

(필자채록, 성산유 온영리, 86.7.29. Y노과, 여·81)

열물에서 막물까지, 즉 음력 3일부터 6일까지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물에 나가 작업을 했었다. 어떤 때는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만 수익이 작을 때는 해녀 작업이 더욱 고될 것은 말할 것 없었다. 따라서 노를 젓고 돌아올 때 [16]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락에 도취되어 노를 젓다 보면 고되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삶이 즐겁고 의욕이 용솟음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이상에서 제보자의 제2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펴 보았는데, 당시의 결혼 제도, 신부의 조건, 남편의 학업, 출가 생활, 남편의 사랑의 배신, 직업관 및 직업 의식,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 등이 드러난다. 제2기의 삶은 한 마디로 남편의 배신에 따른 失意를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의로 승화시켜 나간 삶이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민요 사설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 Ⅲ. 제보자의 민요 전승

민요 중 노동요에서 전승의 死活與否를 두고 대체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작업과 민요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어서, A) 작업과 민요가 현전될

44) 金榮敦; “海女 노래의 機能과 辭說分析”, 「호미崔正如博士頌壽紀念民俗語文論叢」, 1983, pp.165~166.

뿐더러 이 둘이 밀착된 경우, B) 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전되기는 하되, 이 둘이 분리된 경우, C) 작업은 이미 사라졌고 민요만 남은 경우, D) 작업은 남아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 등이다.<sup>45)</sup>

Y노파가 구연한 해녀노래·김 매는 노래는 B)에 해당되고, 멧목 짓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보리 훑는 노래·연자매 노래는 C)에 해당되겠는데 멧목 짓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는 작업이 거의 사라져가는 단계에 있다.

해녀노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또는 한반도 각 연안으로 물질 오갈 때 탄 배의 노를 저으면서 불렀다.<sup>46)</sup> 작업형태에 따른 구연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구연되는 사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Y노파에게 바람이 불때,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벌이가 적어 돌아올 때 부르는 해녀노래는 없느냐고 확인해 보았다. 제보자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을 때 부르는 노래 [18]과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19], 벌이가 적어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20]을 구연해 주었다.

- |           |       |
|-----------|-------|
| [17] 우리베는 | 잘도나간다 |
| 술술가는      | 소나무베야 |
| 잘잘가는      | 잣나무베야 |
| 어가농창      | 가는베야  |
| 정심참도      | 늦어진다  |
| 어서나가자     | 이여도산나 |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7.29, Y노파, 여·81)

- |           |       |
|-----------|-------|
| [18] 브름불영 | 절개날짓나 |
| 브름부난      | 파도가씨다 |
| 어서젓영      | 어서나가자 |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7.29, Y노파, 여·81)

- |           |      |
|-----------|------|
| [19] 우리베에 | 서낭님이 |
| 만선을       | 시껏구나 |
| 고맙수다      | 고맙수다 |

45) 金榮教: “濟州島の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제8집, 1979. pp. 51~52.

46)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 86.

오늘은           만스망일언  
 많이하고       천금만금  
 벌어서에       기십종계  
 네것이라       어서가자  
 어서가자       쳐라쳐라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7.29, Y노과, 여·81)

[20] 줌수나전섬    가련하다  
 아척일찍       집을나가  
 하루종일       번것은  
 기가백하고     못살것구나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7.29, Y노과, 여·81)

위에 든 각편을 구연 상황·시간에 역점을 두어 구분하면 물질 나갈 때 [17]과 물질하고 돌아올 때 [19]·[20], 파도가 썰 때 [1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복(repetition)은 문장의 뜻을 강조하고 흥취나 묘미를 돋구기 위하여 같은 어구나 유사한 어구를 되풀이하는 방법<sup>47)</sup>인데 반복은 민요에서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sup>48)</sup> 내용적으로는 정서 및 旋律的 효과를 위해서 구사되는 것이 주이나, 가끔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도 사용된다.<sup>49)</sup> [17]은 ‘술’과 ‘잘’의 음성적 반복을 음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가는’과 ‘나무배야’도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된다. 어떻게 보면 ‘소’와 ‘жат’의 종성 [∅]와 [s]만이 약간 변조되어 있다. 즉 배를 만든 나무 재료인 소나무의 /소-/, 잣나무의 /жат-/이라는 유사한 음절 반복을 통해 작업장까지 저어 가는 배의 속도감을 음성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18]은 ‘비름 불영 절 갠 날 싯느냐’ 하고 反問法을 쓰고 있다. 서술형보다 의문형, 곧 反問法을 씀으로써 그 억양은 드세어지고 力動感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데<sup>50)</sup>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에서 노 짓는 氣魄만을 모아 놓은

47) 文德守; 「新文章講話」, 成文閣, 1978. p. 317.

48)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103.

49) 鄭東華; 前掲書, p. 68.

50) 金榮教; “海女노래의 機能과 辭說分析”, 「훈민 崔正如博士頌壽紀念民俗語文論叢」, 1983. p. 177.

작편(875번~903번의 자료 29편)에서 반남짓 反問法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도가 세고 거친 상황에서는 자칫 해난 사고의 두려움을 갖기 쉬운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잔 날이 있느냐고 反問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세므로 빨리 노를 저어야 빨리 갈 수 있다고 자문자답함으로써 공포심을 떨쳐 버리고 노릇 짓는데 혼신의 힘을 쏟으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19]와 [20]은 해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부르는 해녀노래인데, 민요의 주술성이란 민요의 기능에서 문제되는 종교적 기능에 해당한다. 종교적 기능이란 노래를 부름으로써 목적 의식적인 종교적 기능을 소지한 것을 말한다.<sup>51)</sup>

[19]는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인데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게 된 것은 서낭님의 神意에 의한 것으로 여겨 감사하는 신앙성이 드러나 있는 전반부와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게 되어 기쁘고 의욕에 차서 노를 짓는 상황을 노래한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20]은 벌이가 적어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인데 아침에 일찍 바다에 나가서 저녁 무렵까지 물질해도 번 것은 보잘것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어장의 좋고 나쁨, 자신의 능력의 우열에서 온다고 여기지 않고 전생의 인과적 숙명에서 찾고 있다.

[17]에서 [20]까지 살펴 본 결과 해녀노래도 한국노동요의 대표적인 모심는 노래<sup>52)</sup>처럼 구연되는 시간에 따라 사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엄쳐나가 작업하는 경우를 ‘못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뱃물질’이라 한다. 海女노래는 ‘못물질하러 헤엄쳐나가면서도 이따금 부르는데,<sup>53)</sup> Y노파는 테왁<sup>54)</sup>을 가슴에 엮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21]을 구연해 주었다.

[21] 이여사나	이여사나
물이남져	어서히라
이여도사나	

51)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p. 221.

52) 모내기 노래는 아침소리, 낮소리, 저녁소리로 구연되는 시간에 따라 사설이 다르다. (趙東一; 「慶北民謠」, 螢雪出版社, 1982, p. 39.

53)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 71.

54)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玄平孝; 前掲書, p. 573).

물이간다	쏟물이간다
동바당테레간다	이여도사나
든물나건	서바당타게
이여도사나	쳐라쳐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물이난다	쏟물나건
동바당타게	든물나건
서바당타고	이여도사나
저어라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필자채록, 성산읍 온평리, 86.7.29. Y노파, 여·81)

제보자에 의하면 테왁을 가슴에 얹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는 '뱃물질' 나갈 때 부르는 해너노래처럼 자주 부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물결이 치고 조류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호흡을 길게 뱉 수 없고 또한 헤엄치는 동작에 맞추어 구연하기 때문에 뱃물질의 해너노래에 비하여 비교적 가락의 템포가 빠르다. 그리고 이러한 구연 상황하에서 혼자만이 구연하기 때문에 사실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구연 빈도 또한 드물다.

터우(뱃목) 짓는 소리도 구연했는데, 터우는 통나무 여럿을 연결하여 만든 뱃목 형태의 원초적인 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도에서는 <터우>라는 이름 외에도 <테>·<테우>·<테배>·<에배>·<테위>라고 부르고 있다. 1백년 전까지 만해도 제주의 터우는 한라산 중턱 이상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근래에 들어 삼나무를 터우의 재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터우의 규모는 대개 선미폭이 170~240cm, 선수폭이 140~180cm, 길이는 400~550cm 정도이다. 터우는 항해속도가 느린 것이 취약점이라 할 수 있으나 원시적인 배의 한 형태인 점으로 미뤄 제주도와 한반도 간의 최초의 도항은 이런 형태의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연안 어로 활동과 해너 운반, 해초 채취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터우 조업은 매년 5월에서부터 9월까지 행해졌으며 조업하지 않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는 바닷가의 바위나 물으로 견져 올려 말린다.<sup>55)</sup>

55) 제주신문, 1985년 10월 3일자 6면,



터우 짓는 소리는 남자 사공들이 자리돔을 잡으러 갈 때와 해녀들을 싣고 넓미역 또는 감태를 캐러 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인데, 자리돔 어장과 감태 채취 어장까지의 거리가 ㄹ물질 거리 정도밖에 안 되고 또한 일년 중 여름철에만 작업이 행하여지므로 가창기연이 드물다. 제보자에 의하면 터우 짓는 소리는 테왁을 가슴에 얹고 해엄치며 부르는 해녀노래처럼 사설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단지 노 짓는 동작에 맞추어 '어야디야'라는 후렴구만을 반복한다고 한다.

[22] 어야디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방아로구나 어허어

어야디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흔저글라 어허어

(필자채록, 성산읍 은평리, 86.7.29. Y노파, 여·81)

해녀들은 실제로 구연을 하질 않고 단지 감태·넓미역을 캐러 갈 때 또는 해녀 작업을 하는 도중 자리돔을 잡고 들어오는 터우에서 남자 사공들이 구연하는 것을 들은 것에 불과함으로 사설은 거의 기억하질 못하고 [22]처럼 단지 후렴만을 기억할 따름이다.

결국 민요는 설화·속담 등과는 달리 그 기능이 두드러져서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서민은 대체로 노동이나 의식을 치르면서, 일상생활의 필요에서 노래하게 되므로<sup>56)</sup> 기능을 떠난 노동요의 전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해녀노래의 구연자가 주로 여성들이고 남성 구연자가 극히 드문 것과도 연관되는데<sup>57)</sup> 安德面 大坪里 이형탁(남·60)의 구연<sup>58)</sup>에서도 드러나듯이 선소리를 부른 정태숙(여·64)의 사설을 따라 부르거나 후렴구만을 부르는데 그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56)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p. 115.

57)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의 海女노래 198편 중 남자 구연 각편은 10편에 불과하다.

58)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研究會; 「白鹿語文」 創刊號, "해녀노래 6-3번의 자료", 1986, pp. 173-174.

1936년부터는 해녀 작업보다는 밭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海女出稼生活보다는 主農副漁의 삶으로 말미암아 農業에서 오는 노동의 不可避性을 받아들여 힘든 노동을 운율에 실어 승화시켜 마음을 달래려는 助興的이고 自慰的인 민요<sup>59)</sup>가 제보자가 구연해 준 農業謠 14편 중 신세한탄을 하는 내용의 사설이 <김 매는 노래> 6편 중 4편, <타작 노래> 5편 중 3편에 드러나고 있다. 이는 1935년 豆滿江·馬養島·新浦 등지에서 물질을 하고 돌아와서는 본토로는 물질을 나가지 아니하고 1945년 해방되기 이전까지 日本의 四國·下關 등지에 두어 차례 물질 나갔을 뿐 牛島에서 농사를 지으며 물때에 맞춰 물질을 하고 얻은 수입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며 홀로 살아온데 기인한다.

제보자 Y노파가 구연한 謠種은 23種이었고 篇數는 57篇이었다. 민요의 분류는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의 분류 기준에 따랐다. (표1참조).

#### IV. 맺 음 말

이상에서 민요에 드러난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의 의미를 Y노파의 생애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결론 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우도의 사회적 환경은 제보자로 하여금 해녀로서의 기량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해녀노래를 배울 때는 사설 내용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따라 부르다가 중·상군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사설 속에 투영시키기도 했다.

해녀들의 出稼는 필연적이었는데, 나은 수익과 생계 유지의 한 방편이었다. 또한 出稼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했는데 해녀노래에서 출가시의 강한 의지를 사설로 드러낸다. 제보자가 김을 매면서 김 매는 노래를 배웠고 해녀 작업을 하면서 해녀노래를 배울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이 고난의 길이었기에 창민요는 거의 배울 수 없었고 단지 '산천초목' 한 구절 정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민요의 전승이 기능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59) 鄭東華: "楊平地方의 民謠攷", 「畿甸文化研究」第三輯,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1973. p. 145.

〈표1〉 제보자가 구연한 謠種 및 篇數

		謠 名	篇 數	
勞	農 業 謠	흙덩이 비수는 노래	1	
		김 매는 노래	6	
		타 작 노 래	5	
		보리 훑는 소리	2	
動	製 紛 謠	맷돌·방아노래	6	
		연 자 매 노 래	1	
謠	漁 業 謠	해 너 노 래	18	
		뱃목짓는 노래	1	
唱民謠	옛 타 령	산 천 초 목	1	
童	動·植物謠	평 노 래	1	
		뱀을 보며	1	
		솔개 뜯 것을 보며	1	
		밤 주 리	1	
		방 아 께 비	2	
		매 미	1	
		게	1	
		달 팽 이	1	
		쇠 비름 뿌리를 두드리며	1	
		謠	天體氣象謠	비 올 때
遊 戲 謠	원님놀이 하며		1	
諷 笑 謠	울던 애를 놀리며		1	
	오줌싸개를 놀리며		1	
자 장 가	자 장 가	1		
總 計	謠 種	23	篇 數	57

〈조사자 : 성산읍 온명리 민요조사반, 조사일시 : 1986. 7. 29〉

당시의 혼인제도는 중매혼이었기에 결혼 당사자의 의식 속에는 당시 현실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순종하며 인내해야 하는 갈등적 요소를 내재하게 했다. 그리고 당시의 처첩관계와 상호 갈등, 해녀의 직업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해녀업에 대한 자긍·자위의식은 서서히 변하여 자녀들은 해녀 직업을 택하지 않게 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녀노래도 모심는 노래처럼 구연되는 시간·상황에 따라 사설 내용이 달랐다. 해녀 작업 출발시의 노래는 어장까지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심정을 염원했고, 작업하고 돌아올 때는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게 되어 기쁜 심정과 많이 채취할 수 없었을 때는 전생의 인과적 숙명에서 온 것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본고는 제보자의 생애와 민요의 사설과의 관계를 조사 연구한 시론으로서 노동요에 국한시켜 살펴 보았는데 제보자의 가족관계, 가정적 여건, 성장 과정 등을 전폭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일이다. 또한 제보자의 생애와 창민요·동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현대문학에서 말하는 작가론처럼 구비문학에서도 작가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보자의 연구를 통한 보다 심층적인 민요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 김무친,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 文德守, 「新文章講話」, 成文閣, 1978.
- 李光奎, 「韓國家族의 心理問題」, 一志社, 1981.
-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 張德順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國文學報」第5輯, 1973.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研究會, 「白鹿語文」創刊號, 1986.
- 濟州道, 「濟州道 統計年報」, 1984.
- 제주신문, 1985.10.3. 6면,
- 趙東一, 「慶北民謠」, 螢雪出版社, 1982.
-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84.
- 黃滄江外3人,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太學社, 1985.
- 玄容駿·金榮敦, 「口碑文學大系 9-3」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姜景璜, 「濟州島의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 \_\_\_\_\_, 「濟州島民의 通過儀禮」, 「제주도」 제33호, 1968.
- \_\_\_\_\_, 「濟州島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제8집, 1979.
- \_\_\_\_\_, 「海女노래의 機能과 辭說分析」, 「한민족崔正如博士頌壽紀念民俗語文論叢」, 1983.

- 外2人, “海女調查研究”, 「耽羅文化」第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 吳益三, “濟州島 옛돌 · 방아노래에 드러난 妻妾關係”, 「學術調查報告書」第6輯,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1978.
- 尹致富, “韓國자장가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李起旭, “島嶼와 島嶼民: 馬羅島”, 「濟州島研究」第一輯, 濟州島研究會, 1984.
- 鄭東華, “楊平地方의 民謠攷”, 「畿甸文化研究」第三輯,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1973.
- 丁堯燮,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女性的 社會的 位置”, 「亞細亞女性研究」12집,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3.
-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